

6. 다음 주자주 혹은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.

宰予晝寢。子曰：「朽木不可雕也，糞土之牆不可朽也，於予與何誅。」子曰：「始吾於人也，聽其言而信其行；今吾於人也，聽其言而觀其行。於予與改是。」

- ①朽, 腐也
②雕, 刻畫也
③朽, 鏹也
④誅, 責也
⑤朽의 독음은 “오”이다

7. 다음 빈 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를 한 글자 한자로 쓰시오.

子貢曰：「我不欲()之加諸我也，吾亦欲無加諸()。」子曰：「賜也，非爾所及也。」
()

8. 다음 주자주 혹은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.

子謂子產，「有君子之道四焉：其行己也恭，其事上也敬，其養民也惠，其使民也義。」

- ①子產，鄭大夫公孫僑
②恭，謙遜也
③敬，謹恪也
④惠，愛利也
⑤義，義利也

9. 다음 밑줄 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.

子曰：「晏平仲善與人交，久而敬之。」

- ①名嬰也 ②戰國時代 齊나라의 정치가
③靈公, 莊公, 景公 3대에 걸쳐 재상을 지냄 ④그가 남긴 저서로 晏子春秋가 있다.
⑤그는 죄수로 끌려가던 월석보를 현인으로 여겨 돈을 주고 풀어나게 하였다.

10. 다음 주자주 혹은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.

子曰：「臧文仲居蔡，山節藻梲，何如其知也？」

- ①文仲，魯大夫臧孫氏，名辰
②居，猶藏也
③蔡，大龜也
④節，柱頭斗拱也
⑤藻，水草名
⑥悅，梁上長柱也

11. 다음 주자주 혹은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. (답 2개)

顏淵、季路侍。子曰：「盍各言爾志？」子路曰：「願車馬、衣輕裘，與朋友共。敝之而無憾。」顏淵曰：「願無伐善，無施勞。」子路曰：「願聞子之志。」子曰：「老者安之，朋友信之，少者懷之。」

- | | |
|-----------|---------|
| ①衣, 服之也 | ②裘, 衣服 |
| ③敝, 破碎也 | ④憾, 恨也 |
| ⑤伐, 誇也 | ⑥善, 謂有能 |
| ⑦施, 亦張大之意 | ⑧勞, 謂勞力 |

12. 다음 빈 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고르시오

子曰：「雍也可使()面。」

- ①東 ②西 ③南 ④北 ⑤中

13. 다음 朱子注 혹은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.

哀公問：「弟子孰為好學？」孔子對曰：「有顏回者好學，不遷怒，不貳過。不幸短命死矣！今也則()，未聞好學者也。」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①遷, 移也 | ②貳, 復也 |
| ③빈 칸에 들어갈 단어는 無이다 | ④顏回의 字는 子淵이다 |
| ⑤顏回와 관련된 고사는 聞一知十이 있다. | |

14. 다음 밑줄 친 鄰里鄉黨의 합은 몇인가?

原思為之宰，與之粟九百，辭。子曰：「毋！以與爾鄰里鄉黨乎！」

()

15. 다음 朱子注 혹은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.

季康子問：「仲由可使從政也與？」子曰：「由也果，於從政乎何有？」曰：「賜也，可使從政也與？」曰：「賜也達，於從政乎何有？」曰：「求也，可使從政也與？」曰：「求也藝，於從政乎何有？」

- ①從政, 謂爲大夫 ②果, 有決斷 ③達, 通事理 ④藝, 多才能 ⑤季康子의 名은 晳이다

16. 다음 朱子注 혹은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.

伯牛有疾，子問之，自牖執其手，曰：「亡之，命矣夫！斯人也而有斯疾也！斯人也而有斯疾也！」

- ①伯牛, 孔子弟子, 姓冉, 名耕 ②有疾, 先儒以爲癩也
③自는 스스로라는 의미이다 ④牖, 南牖也
⑤斯人이 가리키는 것은 伯牛이다

17. 다음 빈 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한 글자의 한자로 쓰시오.

冉求曰：「非不說子之道，力不足也。」子曰：「力不足者，中道而廢。今女()。」
()

18. 다음 빈 칸에 들어갈 단어로 순서대로 알맞게 연결된 것을 고르시오.

子曰：「知者樂()，仁者樂()；知者()，仁者()；知者()，仁者()。」

- ①山 - 水 - 動 - 靜 - 樂 - 壽 ②山 - 水 - 動 - 靜 - 壽 - 樂
③山 - 水 - 靜 - 動 - 樂 - 壽 ④水 - 山 - 動 - 靜 - 樂 - 壽
⑤水 - 山 - 動 - 靜 - 壽 - 樂 ⑥水 - 山 - 靜 - 動 - 樂 - 壽

19. 다음 朱子注 혹은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.

子曰：「孟之反不伐，奔而殿。將入門，策其馬，曰：『非敢後也，馬不進也。』」

- ①伐, 誇功也 ②奔, 敗走也 ③軍後曰殿 ④門, 軍門也 ⑤策, 鞭也

20. 다음 빈 칸 ㉠와 ㉡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한자로 쓰시오.

子貢曰：「如有博施於民而能濟眾，何如？可謂仁乎？」子曰：「何事於仁，必也聖乎！堯舜其猶病諸！夫仁者，(㉠)欲立而立(㉡)，(㉠)欲達而達(㉡)。能近取譬，可謂仁之方也已。」
()